

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Founder's Start-up Preparation and the Burden of Start-up Failure on Start-up Achievement-Focusing on the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

한 향 원¹⁾, 하 규 수^{2)*}

(Hyang Won Han and Kyu Soo H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창업자가 창업을 함에 있어 창업준비를 통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본질적으로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 298명을 표본 추출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준비의 하위 가설인 창업아이템 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반된 개념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성과간의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창업실패 부담감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핵심주제어: 창업자, 창업준비,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성과, 사회적지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empirically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s of the start-up performance and the inherent fear factor of failure on the start-up performance through the preparation of the start-up. Second,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influence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preparation and the burden of start-up failure. The research subjects were sampled and analyzed by 298 start-ups who are currently starting their own businesses. This study finds that preparation of start-up items, which is a subordinate theory of start-up prepa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and that anxiety about failu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oved the moderating effect of

* Corresponding Author: ksh@hoseo.ac.kr

+ 본 논문은 벤처창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확장하여 작성된 논문임

Manuscript received October 28, 2020 / revised November 24, 2020 / accepted November 24, 2020

1)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제1저자

2)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신저자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preparation, start-up failure burden and startup performance. Furthermor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mong start-up preparation, start-up failure burden and start-up achievement was analyzed, but no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for start-up failure burden. Besides, the effect of the opposite concept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s at the same time is to be analysed.

Keywords: Start-up, Start-up preparations, Burden of start-up failure, Start-up achievement, Social support

1. 서 론

최근 세계경제 위기와 지속적인 내수경기의 침체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감과 함께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다. 창업은 실패의 위험성이 크게 내포되어 있으며 상당히 위험한 도전이다 (Venkataraman, 1997; McGrath, 1999).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다양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막상 창업현장에서 창업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편 창업준비를 철저히 한 창업이 아닌 창업 지원 정책을 이용할 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창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Park and Ahn, 2016), 비대면 소비패턴의 변화와 준비 없는 정부의 의존형 창업 모두 창업실패의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게다가 준비 없는 창업은 창업 시 창업성과가 부실해지면서 창업실패와 직결되고 있다.

Jo (2020)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와 생산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최소한 4년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코로나 블루'라는 집단 우울의 시대 코로나로 인해 소비자들의 고립과 단절은 소비의 행태가 감소되면서 고스란히 창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기업의 불안감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기업가에게 심리적 장벽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

타나게 된 것이다 (Landier, 2004).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지원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및 관련 제도가 있더라도 사실상 모든 창업자들에게 실제적 도움들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창업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정부의 사업화 및 운전 자금 지원 부족, 창업 후 사후관리 부족, 연계성 사업의 미흡 등 제반의 문제점들이다 (Kwak et al, 2016). 따라서 창업가가 창업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러므로 창업가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자 스스로가 창업에 대한 철저한 생존요인 분석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 기업의 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Nam, 2020). 특히 성공이나 실패는 기업가의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르며 위험감수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창업가마다 차이가 있다 (Shapero and Sokol, 1982). 또한 사업의욕은 대해서 국가나 지역경제 또는 조직의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 (Resilience)과 자기쇄신 (Self-renewing)의 특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Shapero, 198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창업자가 창업을 함에 있어 창업준비를 통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본질적으로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의 관계에서 미치는

는 영향력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상반된 개념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기존 연구들은 창업 실패감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업준비와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여 기존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환경적 요인의 효과성을 증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자 자신의 준비와 행동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가족과 친구 등의 주변 사회적지지자로부터 상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성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2.1 창업준비

Bates (1980), Cressy (1999)는 창업경험과 교육수준은 성공창업에 중요하며 창업자의 준비수준이 창업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Kang and Ha (2012)는 창업초기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성공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창업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창업준비과정과 자기자본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업준비 기간이 창업회사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Oh et al.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에 필요한 자원인 사업아이템과 기술, 필요한 인력 및 자금 확보는 시간투자와 노력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Jo (2016)는 소상공인 대상 창업 준비사항에서 업종 및 아이템선정과 창업자금, 그리고 창업 준비기간을 변수로 하여 창업성과에 영향관계를 밝히고, 창업성과에 있어 창업업종 및 창업아이템 선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창업자

들은 자신의 적성과 전직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창업을 선택해야하며 창업초기 창업자금이 준비된 상태에서의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Park (2020)은 초기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준비에 하위요인으로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준비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2.1.1 아이템준비

Cooper (1986)는 창업가에게 무엇을 생산할지에 대한 문제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사업아이템 창업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라고 하였다. Ajzen (1991)은 계획된 행동이론(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창업자들은 창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창업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Kang (2013)은 창업 아이디어는 시장성을 갖춘 창업아이템을 고안해내는 방법이며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은 상품이 구입 및 판매되는 가능성 척도라고 하였다. Kim (2015)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목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먼저 창업가는 시장의 니즈를 찾아야 하고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창업 아이템을 평가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술기반으로 한 창업아이템은 기술평가와 사업성평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시장성이 있는 창업아이템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Lim (2015)은 청년창업가의 창업사전준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창업실패의 주요원인 중 아이템 선정 실패가 12%가 나왔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에 있어 중요한 성공요소 중에 하나가 사업아이템 선정이며 적절한 아이템 선정은 창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Jo (2016)은 창업자가 제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창업아이템의 선정이라고 주장하였다. Jo (2019)는 대학생 중 예비창업자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어떠한 과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예비창업

자들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실전과정에서 창업 분야 및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창업아이템에 대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거나 동업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등의 과정으로 창업준비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2.1.2 자금준비

Vesper (1990)는 사업초기 충분한 자본은 사업체가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하였다. Joung (2001)은 충분한 자금 확보가 성공창업에 중요하며 창업 실패의 여러 요인 중 자금부족은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Jo (2019)은 신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창업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창업자가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있어 창업자금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im and Kwon(2018)은 소상공인의 창업준비와 창업성공의 영향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창업준비 과정에 따라 사업의 실패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성공에 있어 창업자금 마련이나, 창업준비기간, 멘토 및 전문 지원 기간 활용 등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2.1.3 창업팀 준비

Vyakarnam et al. (1997)은 개인의 설립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창업팀 설립이 더 성공적이라고 하였다. Lechler (2001)는 특히 창업팀의 강점은 고기술 기반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기술창업은 시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히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팀이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 월등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Lee and Kim (2017)은 3년 이내의 초기기술창업가 27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기 성과를 위해 1인 창업보다 팀 창업을 고려해야하고 팀 창업 구성 시 전공, 경력 및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팀은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Jeon (2019)은

창업팀 (Entrepreneurial team)이란 2인 이상 구성원이 새롭게 기업을 운영할 목적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팀의 특성은 외부투자자 등 투자 심사 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2.2 창업실패감의 부담감

Cooper and Marshall (1998)은 직무스트레스는 특정 직무에서 부정적인 환경요소 또는 열악한 직무환경, 과도한 직무요인, 그리고 역할의 모호성으로 유발된다고 하였다. 또한 Yoon and Ha (2012)는 창업실패에 대한 인식이 높을 때 시장 전망이 좋더라도 창업의지는 감소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Shapero and Sokol (1982)은 창업성공이나 실패는 기업가의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르며 위험감수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창업가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Oh and Ha (2013)는 예비창업자들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들은 창업의도에 약화요인으로 적용되고 이에 따라 창업가들은 사업실패부담감을 경험하게 되고 사업수행시에도 계속해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 Lee (2016)는 창업자 주변의 성공과 실패모습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자들은 실패한 창업자의 모습에서 창업실패가 곧 인생의 전체 실패라는 인식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창업실패감의 두려움은 사업 실패에 대한 걱정과 공포감 불안과 스트레스 등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실패 부담감의 하위요인으로 경제적 부담감과 실패의 불안감을 각각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2.1 경제적 부담감

Ha (2009)에 따르면, 기업이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재무적 비용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과, 사업투자손실, 차입금이 있으며 비재무적 비용은 가족과 연관된 손실, 경력에 대한 손실과 또한 사회적 손실 뿐 아니라 자존심과 상실이 있다. Kim (2012)은 벤처기업 창업가는 실패의 부담감이 크며, 기업 운영은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감이 높아지며 심리적 스트레스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Jang (2013)은 창업실패가 두려운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금적 손실이라고 하였다. Park (2016)은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 425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경제적 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 et al. (2019)은 창업실패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창업가는 창업실패로 인해 개인적 채무를 부담해야하고 사회적으로 외면 받는 처지에 놓인다고 하였다.

2.2.2 창업 실패의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Fear of failure)은 개인의 실패에 대한 혐오적 결과를 이해하면서도 평가상황에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 성향이다 Conroy and Elliot (2004). Ha (2009)는 사회적 손실, 경력손실, 명예 및 자존감 상실, 가족 관련 손실 등 창업가의 창업실패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창업의지를 저해시킨다고 하였다. Lee and Kim (2013)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기피하며 기회를 포착하지만 실패 우려로 창업을 주저하게 된다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Song (2015)은 실패 부담감이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부담감은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초기단계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정신의 지속성과 성공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켜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renius and Minniti, 2005). Ha and Han (2010)은 기업이 실패할 경우 재무적 및 비재무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들은 심리적 스트레스 및 사업실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의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창업가에 있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오는 불안감에서 실패의 불안감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는데 이때 스트레스 내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Rauch and Frese (2007)은 스트레스 내성 (Stress tolerance)과 사업의 성공 여부

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Kim (2012)은 창업가의 스트레스 내성이 강하면 스트레스 발생도 감소하고 또한 스트레스가 생길 경우 이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내성을 갖춘 창업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억제하기 위하여 동기부여를 찾는다고 하였다 (Amit et al., 1995).

2.3 사회적지지

Durkheim (1951)는 사회적지지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상호관계에 얻게 되는 정보제공, 정서적인 지원, 서비스지원 물질적인 지원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후 Cobb (1976)는 사회적지지를 개인 스스로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고, 스스로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인이 존경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과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House (1981)는 사회적지지를 개인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 및 도움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서로 주고받은 정서적 관심, 도구적 지원, 정보,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존중, 인정, 사랑 등 정신적인 도움이나 물질적 도움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Seo (2016)은 사회적지지만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과 자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Jang, 2018).

Kim and Kwon (2018)은 사회적지지가 창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로 인해 얻는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은 자영업 창업성과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Lee (2020)는 사회적지지 유형을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창업자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본인이 옳은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늘 가질 수 있는데,

이 때 주변의 지지는 창업자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House (1981)의 정서적지지를 바탕으로 사회적지지를 창업자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자 가족과 주변지인들로부터 창업자가 인지하는 동정, 관심 사항, 신뢰로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정서적지지는 자기존중, 신뢰, 관심, 경청을 포함한다.

2.4 창업성과

Venkatraman and Ranmanujam (1986)의 연구에서는 창업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 및 만족도, 주관적 성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Birley and Westead (1994)는 기업성과는 비경제적 요인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Kim (2015)은 기업성과는 경영성과와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기업성과는 정량적 측정가능 재무적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외부평판, 기술력, 신제품개발 및 적용, 창업자 만족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Lee and Yang (2018)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창업교육과 컨설팅지원 사업 등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Zhu (2013)는 기술력 및 기술관리와 생산지원과 마케팅역량, 신제품 개발 능력 등 비재무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Oh et al. (2015)은 비재무적 성과 측정 변인을 지식재산권 등 등록 보유중 이거나 출원중인 각종 산업 지식 재산권 보유개수의 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창업성과는 비재무적 성과로서 단일변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창업준비의 하위요인은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 준비로 하였으며 창업실패부담감의 하위요인으로 경

제적 부담감과 실패의 불안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가 조절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수들과 그 하위요인들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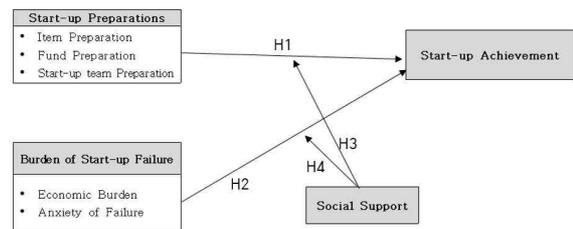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Fig. 1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상기의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3.2.1 창업준비와 창업성과의 관계

Kim and Kwon (2018) 소상공인의 창업준비성과 창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성공적 창업을 위해서는 아이템 발굴전략과 창업자금 마련과 해당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창업준비는 창업할 때 시간과 노력의 투자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준비성과 재무적성과의 관계는 기각이 되었지만 비재무적성과와의 관계는 채택되었다고 하였다.

Park and Ahn (2016)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준비가 중요하며, 창업준비는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rk and Kim (2019)는 창업자 332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창업 시 창업경험 및 네트워크는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성과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자

의 시행착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업아이템과 유사한 경험을 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노하우 전수를 위한 창업멘토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Chang (2020)은 연구결과 단독창업에 비해 공동창업은 창업만족과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개념인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 준비가 창업성과와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창업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아이템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자금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창업팀 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의 관계

Shane and Venkatarman (2000)은 사업 성공뿐 아니라 실패는 조직, 사회, 개인에게 있어 원인과 결과를 포함해서 창업가에게 중요한 현상이며 많은 창업가들은 창업가들의 실패 경험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일정수준의 실패경험은 기업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Cardon and McGrath, 1999; Cope et al., 2008). 그리고 인적자본은 창업 성과와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실패를 통한 창업가의 경험학습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였으며 특히 실패경험은 기회추구나 생존능력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있다 (Mezirow, 1991; Sitkin, 1992; Zacharakis et al., 1999; Cope, 2011).

Park (2012)는 창업실패경험자의 창업실패율 경험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실증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창업실패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성과와는 역 U자형의 관계가 있었다. Ha and Han (2010)은 현재 사업 중이거나 실패경험이 있는 사업가 247명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의 기업실패 스트레스가 심리적 스트레스와 중단 손실 스트레스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사업실패경험자, 왜곡된 자본조달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혹은 막연하게 사업을 생각하는 예비창업자들은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Park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실패부담감은 창업가들에게 창업이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하위개념으로 경제적 부담감과 실패의 불안감이 각각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창업실패 부담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경제적 부담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실패의 불안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관계

Sarasvathy(2008)는 사회적지지가 모든 창업성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용이 자영업의 창업성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Kim and Kwon(2018)은 소상공인 35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사회적지지와 창업준비성임을 밝혀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기업이나 조직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신뢰와 존중 등을 구축하여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im (2020)은 표본 집단 220명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가족, 지인들의 주변인들의 정신적인 지지와 물질적지지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특히 창업가의 심리적특성 중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에 따라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며, 이는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은 불확실한 창업과정에 반복되는 위기와 위협 등에 있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주변의 물리적 심리적 도움은 이러한 자신감을 더욱 강화시켜 높은 성과가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내성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며, 기업이 실패할 경우 창업가의 재무적 부담이 높아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트레스 내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m and Kwon(201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이 때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3.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창업실패 부담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

본 연구에서는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와의 영향관계와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하기위함으로 관련 세부 측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창업준비는 Jo (2016), Joung (2001), Lee and Kim (2017), Lim (2015)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아이템준비 5문항, 자금준비 4문항, 창업팀 준비는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실패부담감은 Ha (2009), Lee and Kim (2013), Lee (2016), Oh and Ha (2013)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경제적 부담감 4문항과 실패의 불안감 4문항으로 각각 측정항목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선행연구 Durkheim (1951), House (1981), Kim and Kwon (2018)의

연구를 참고로 창업에 대한 가족과 주변, 친구, 지인 및 동료들의 지지가 도움을 주었는지 파악하였고 4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성과는 Kim (2015), Lee and Yang (2018), Venkatraman and Ramanujam (1986)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비재무적성과로서 현재의 창업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현재 사업의 성과에 만족 중심으로 4문항으로 측정항목을 설정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현재 개인 또는 법인 창업을 하고 있는 기창업자 대상 298부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 (Ver. 23.0)을 이용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Varimax 직각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하였고, 신뢰성 분석에서는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수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에 의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변수 간 상관성의 정도와 방향성은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가설인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14	71.8
	Female	84	28.2
Age	20-25	22	7.4
	26-30	46	15.4
	31-35	60	20.1
	36-40	47	15.8
	41-45	40	13.4
	46-50	48	16.1
	51above	35	11.8
Academic Background	Highschool	35	11.8
	Junior college	34	11.4
	University	155	52.0
	Graduate School(Master's degree)	60	20.1
	Graduate School (Doctor's degree)	14	4.7
Monthly Income (million)	Under 1	48	16.1
	1-2	53	17.8
	2-3	63	21.1
	3-4	64	21.5
	4-5	27	9.1
	More than 5	43	14.4
Start-up Classify	Individual Business	195	65.4
	Corporate Business	103	34.6
Start-up Type	One-person Start-up	184	61.8
	Two-person Start-up	57	19.1
	More than Three-person Start-up	57	19.1
	Experience of Start-up from Parents and Siblings	None	154
	Yes	144	48.3
Sum		298	100.0

학력, 월평균 소득과 함께 창업형태, 창업유형, 부모형제 창업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남성 214명(71.8%), 여성 84명(28.2%)이었고, 연령은 20~25세 22명(7.4%), 26~30세 46명(15.4%), 31~35세 60명(20.1%), 36~40세 47명(15.8%), 41~45세 40명(13.4%), 46~50세 48명(16.1%), 51세 이상 35명(11.8%)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5명(11.8%), 전문대학교 졸업 34명(11.4%), 대학교 졸업 155명(52.0%), 대학원 졸업(석사) 60명(20.1%), 대학원 졸업(박사) 14명(4.7%)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48명(16.1%), 100~200만원 미만 53명(17.8%), 200~300만원 미만 63명(21.1%), 300~400만원 미만 64명(21.5%), 400~500만원 미만 27명(9.1%), 500만원 이상 43명(14.4%)으로 1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의 월 소득자가 전체의 60.4%이었다.

창업형태는 개인사업자 195명(65.4%), 법인사업자 103명(34.6%)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았고, 창업유형은 1인 창업 184명

(61.8%), 2인 창업 57명(19.1%), 3인 창업 이상 57명(19.1%)으로 1인 창업이 가장 많았다.

부모형제 창업유무에서는 부모형제가 창업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154명(51.7%), 있는 경우가 144명(48.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남성과 여성으로서 30대, 40대가 비교적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에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창업형태는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였으며, 창업유형은 1인 창업이 가장 많았고, 부모형제의 창업경험이 없거나 혹은 있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변수인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 사회적 지지 및 창업성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베리맥스(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0.5 이상을 유효한 변수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적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방법은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Cronbach α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였다(Cronbach, 1951). 일반적인 실증분석에서는 Cronbach α 값이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간주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에 준하여 신뢰성 측정을 실시하였다(Hair et al., 1998). 신뢰성 분석에서는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인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창업준비와 창업실패 부담감,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 종속변수인 창업성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 추출 전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 표본적합도가 .860으로 .600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는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Name of Factor	Questionnaire	Factor loading						
		1	2	3	4	5	6	7
Start-up team Preparations	Start-up team Preparations2	.896	-.025	.048	.203	.079	.172	.037
	Start-up team Preparations4	.878	.008	.039	.127	.156	.231	-.015
	Start-up team Preparations3	.876	-.007	.099	.175	.107	.195	.033
	Start-up team Preparations1	.863	.008	.040	.202	.098	.203	.012
Economic Burden	Economic Burden3	.004	.881	-.077	.000	-.048	-.002	.238
	Economic Burden4	.068	.829	-.107	.038	-.073	.106	.222
	Economic Burden2	-.048	.811	.080	.065	-.064	.006	.115
	Economic Burden1	-.018	.776	.026	-.005	-.071	.042	.244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2	.074	-.035	.831	.099	.153	.130	-.007
	Social Support4	.070	-.018	.816	.115	.179	-.003	-.101
	Social Support3	.020	.010	.805	.109	.171	-.085	-.011
	Social Support1	.031	-.012	.797	.130	.191	.098	-.016
Item Preparations	Item Preparation2	.086	.064	.105	.838	.099	.137	-.095
	Item Preparation3	.117	.008	.144	.808	.237	.141	-.128
	Item Preparation5	.263	-.041	.055	.739	.141	.207	.049
	Item Preparation4	.217	.042	.283	.602	.093	.099	-.001
	Item Preparation1	.251	.002	.021	.543	.281	.396	-.090
Start-up Achievements	Start-up Achievements2	.097	-.081	.185	.062	.777	.103	-.032
	Start-up Achievements1	.114	-.173	.163	.160	.768	.134	-.021
	Start-up Achievements3	.129	-.075	.214	.222	.743	.075	-.089
	Start-up Achievements4	.078	-.020	.256	.213	.680	-.046	-.188
Fund Preparation	Fund Preparation2	.220	.001	-.009	.110	.129	.836	.106
	Fund Preparation1	.093	-.007	-.041	.159	.233	.782	.099
	Fund Preparation3	.235	.018	.135	.212	-.064	.727	-.037
	Fund Preparation4	.284	.190	.079	.181	-.050	.612	-.088
Anxiety of failure	Anxiety of failure2	.010	.223	-.063	-.055	-.049	.019	.871
	Anxiety of failure3	.042	.238	-.053	-.048	-.013	.034	.820
	Anxiety of failure4	.012	.471	-.057	-.092	-.185	.021	.724
	Anxiety of failure1	-.011	.521	.044	-.062	-.209	.008	.641
Eigenvalue		3.546	3.412	3.005	3.002	2.729	2.708	2.668
Variance %		12.228	11.765	10.361	10.353	9.412	9.339	9.200
Cumulative Variance %		12.228	23.993	34.354	44.707	54.119	63.458	72.658
Cronbach's α		.947	.881	.866	.849	.829	.810	.883

$\chi^2=5663.004$, $p<.001$ 로서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유치 1.0이상인 7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분산이 72.658%로서 6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요인 1은 창업전에 창업을 준비할 파트너를 열심히 모색하거나 창업팀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은 것과 관련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창업팀준비'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창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 사업 실패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경제적 부담감'이라 하였고, 요인 3은 창업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의 도움과 적극적 지지에 관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지지'라 하였다. 요인 4는 창업 아이টে에 대한 많은 경험과 숙달, 노하우 축적 등에 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아이템준비'라 하였고, 요인 5는 창업 이후의 좋은 성과와 만족도, 기대감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창업성과'라 하였다. 요인 6은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해 수입의 대부분을 비축하거나 상당기간 자금을 준비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자금준비'라 하였고, 요인 7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등에 대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실패의 불안감'이라 명명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창업준비는 아이টে준비, 자금준비, 창업팀준비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나뉘었고, 창업실패 부담감은 경제적 부담감, 실패의 불안감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사회적지지와 창업성과는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신뢰성 분석 결과에서는 Cronbach's α계수가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Cronbach's α계수의 경우 창업준비의 아이টে준비 .849, 자금준비 .810, 창업팀준비 .947이었고, 창업실패 부담감의 경제적 부담감 .881, 실패의 불안감 .883이었으며, 사회적지지 .866, 창업성과 .829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창업준비를 구성하는 요인의 경우 아이টে준비 (M=3.724), 창업팀준비 (M=3.358), 자금준비 (M=3.128)의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창업실패 부담감은 경제적 부담감 (M=3.762), 실패의 불안감 (M=2.982)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고, 사회적지지 (M=3.790)에 비해 창업성과 (M=3.850)의 평균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중 창업성과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실패의 불안감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창업성과는 창업준비의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준비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창업실패 부담감의 경제적 부담감, 실패의 불안감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상관계수는 -.263에서 .464 사이로서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상관성이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창업준비의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준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창업실패 부담감의 실패의 불안감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창업성과와 정(+의 상관성이 있었으며, 상관계수는 -.119에서 .461 사이의 값을 보여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4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불연속 변수는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다수의 독립변수 투입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분산 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산 팽창 계수의 경우 10 이상이면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이며, 10 이하로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한 회귀 모형과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한 회귀모형을 비교하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즉,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회귀모형에서 결정계수가 유의미하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항이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조절변수는 유의하지 않지만 상호작용항이 유의할 경우 순수조절변수이고,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할 경우 유사조절변수이며, 조절변수는 유의하지만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조절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Classification		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tart-up Preparations	Item Preparations	298	1.00	5.00	3.724	.851
	Fund Preparation	298	1.00	5.00	3.128	.970
	Start-up team Preparations	298	1.00	5.00	3.358	1.173
Burden of Startup Failure	Economic Burden	298	1.00	5.00	3.762	1.051
	Anxiety of Failure	298	1.00	5.00	2.982	1.142
Social Support		298	1.50	5.00	3.790	.851
Start-up Achievements		298	1.00	5.00	3.850	.755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Classification	1	2	3	4	5	6	7
1.Item Preparations	1						
2.Fund Preparation	.494***	1					
3.Start-up team Preparations	.481***	.495***	1				
4.Economic Burden	.019	.103	.012	1			
5.Anxiety of Failure	-.142*	.054	.001	.612***	1		
6.Social Support	.339***	.140*	.176**	-.056	-.119*	1	
7.Start-up Achievements	.464***	.240***	.295***	-.201**	-.263***	.461***	1

* p<.05, ** p<.01, *** p<.001

4.4.1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1인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하고, 창업준비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창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VIF 값의 경우 1단계, 2단계 모두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5.128,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1.0%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연령 ($\beta=-.134, t=-2.193, p<.05$)은 창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창업성과가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월 평균 소득 ($\beta=.212, t=3.440, p<.01$), 창업형태 ($\beta=.162, t=2.759, p<.01$), 부모형제 창업유무 ($\beta=.176, t=3.106, p<.01$)는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월평균 소득이 높고 법인사업자이면서 부모형제가 창업한 경험이 있을수록 창업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창업준비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11.590,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8.8%로 1단계보다 17.8% 증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연령 ($\beta=-.172, t=-3.086, p<.01$)이 창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월 평균 소득 ($\beta=.168, t=3.016, p<.01$), 부모형제 창업유무 ($\beta=.130, t=2.538, p<.05$)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1단계에서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던 창업형태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준비의 요인 중에서는 자금준비와 창업팀준비를 제외하고 아이팀준비 ($\beta=.423, t=6.701, p<.001$)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창업 아이팀에 대한 많은 경험과 숙달, 노하우 축적 등으로 아이팀준비를 많이할수록 창업 이후의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 자금이나 창업팀에 대한 준비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창업성과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자금준비와 창업팀준비보다 아이팀준비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창업준비의 요인 중 아이팀

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1 (창업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일부 채택되었고, 가설 1-1 (아이팀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채택, 1-2 (자금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창업팀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기각되었다.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5.128,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1.0%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연령 ($\beta=-.134, t=-2.193, p<.05$)은 창업성과에 부 (-)

Table 5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tart-up Achievement

Independent variable	Phase	Phase 1 ^{a)}			Phase 2 ^{b)}		
		β	t	P	β	t	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057	-1.022	.308	.033	.663	.508
	Age	-.134	-2.193*	.029	-.130	-2.345*	.020
	Academic Background	.002	.027	.978	-.049	-.928	.354
	Average Monthly Income	.212	3.440*	.001	.141	2.547*	.011
	Start-up Classify	.162	2.759*	.006	.096	1.824	.069
	Start-up Type	-.029	-.492	.623	-.044	-.835	.405
	Experience of Start-up from Parents and Siblings	.176	3.106*	.002	.127	2.533*	.012
Start-up Preparations	Item Preparations				.395	6.255**	.000
	Fund Preparation				.029	.476	.635
	Start-up team Preparations				.056	.899	.370
Burden of Start-up Failure	Economic Burden				-.117	-1.866	.063
	Anxiety of Failure				-.107	-1.655	.099
F		5.128***			11.441***		
R ²		.110			.325		
ΔR^2					.215		

* $p<.05$, ** $p<.01$, *** $p<.001$, ^{a)}VIF: 1.017-1.235,

^{b)}VIF: 1.063-1.751

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창업성
과가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월 평균 소득 (β
=.212, $t=3.440$, $p<.01$), 창업형태 ($\beta=.162$,
 $t=2.759$, $p<.01$), 부모형제 창업유무 ($\beta=.176$,
 $t=3.106$, $p<.01$)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월평균 소득이 높고
법인사업자이면서 부모형제가 창업한 경
험이 있을수록 창업성과가 높아지고 있
었다.

창업준비와 창업실패 부담감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11.441$,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32.5%로
1단계보다 21.5% 증가하였다.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beta=-.130$, $t=-2.345$,
 $p<.05$)이 창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월 평균 소득 ($\beta=.141$, $t=2.547$,
 $p<.05$), 부모형제 창업유무 ($\beta=.124$,
 $t=2.533$, $p<.05$)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창업준비와 창
업실패 부담감의 요인 중에서는 아이
템준비 ($\beta=.395$, $t=6.255$, $p<.001$)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창업 아이
템에 대한 많은 경험과 숙달, 노하우 축
적 등으로 아이템준비를 많이할수록 창
업 이후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제외하고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창
업성과에 대해서는 창업실패 부담감
보다 창업준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
로 파악된다.

4.4.2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 및 창업성 과 간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본 연구는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
감과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
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는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으로 해결하였고, 편차점수를
이용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
석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2단계 회귀모형과 3단계 회
귀모형을 비

교하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으며, 조절변수는 유의하지
않으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면 순
수조절변수, 조절변수와 상호작용
항이 모두 유의하면 유사조절변수,
조절변수는 유의하나 상호작용항
이 유의하지 않으면 조절효과가 없
다고 판단하였다.

4.4.2.1 창업준비와 창업성 과 간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창업준비와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
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
ble 6과 같다. 1단계 회귀모형에서
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창업준비를 투입하였고, 2단
계 회귀모형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 회귀
모형에서는 창업준비와 사회적지
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
하였다. 이 과정에서 VIF 값을 확인
해보니 1단계와 2단계, 3단계 모두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
구통계학적 특성과 창업준비를 투
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11.169$,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
명력이 23.6%로 나타났다. 인구통
계학적 특성의 연령 ($\beta=-.156$, $t=-2.734$,
 $p<.01$)은 창업성과에 부(-)의 영
향을 미치고 있었고, 월 평균 소득
($\beta=.162$, $t=2.818$, $p<.01$), 창
업형태 ($\beta=.136$, $t=2.493$, $p<.05$),
부모형제 창업유무 ($\beta=.132$, $t=2.498$,
 $p<.05$)는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창
업준비($\beta=.374$, $t=6.905$, $p<.001$)
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주고 있어 창업에 대한
준비를 많이할수록 창업 이후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2
단계 회귀모형은 $F=16.683$,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34.3%로서 1단계보다 10.7% 증
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월
평균 소득 ($\beta=.155$, $t=2.901$, $p<.01$)
이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독립변
수인 창업준비 ($\beta=.276$, $t=5.283$,
 $p<.001$)와 조절변수인 사회적지
지 ($\beta=.352$, $t=6.832$, $p<.001$)
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창업성
과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창업
준비보다 사회적지지가 더 높았

Table 6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Start-up Preparation and Start-up Achievement

Independent Variable	Phase	Phase 1 ^{a)}			Phase 2 ^{b)}			Phase 3 ^{c)}		
		β	t	P	β	t	P	β	t	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014	-.276	.783	-.054	-1.114	.266	-.052	-1.069	.286
	Age	-.156	-2.734**	.007	-.089	-1.654	.099	-.089	-1.666	.097
	Academic Background	-.031	-.556	.578	-.032	-.614	.540	-.042	-.817	.415
	Average Monthly Income	.162	2.818**	.005	.155	2.901**	.004	.146	2.747**	.006
	Start-up Classify	.136	2.493*	.013	.091	1.787	.075	.089	1.740	.083
	Start-up Type	-.065	-1.185	.237	-.053	-1.050	.295	-.051	-1.011	.313
	Experience of Start-up from Parents and Siblings	.132	2.498*	.013	.094	1.899	.059	.104	2.102*	.036
Start-up Preparations		.374	6.905***	.000	.276	5.283**	.000	.286	5.491**	.000
Social Support					.352	6.832**	.000	.341	6.619**	.000
Start-up Preparations* Social Support								.109	2.258*	.025
F		11.169***			16.683***			15.738***		
R ²		.236			.343			.354		
ΔR^2					.107			.011		

* $p < .05$, ** $p < .01$, *** $p < .001$, a)VIF: 1.031-1.255, b)VIF: 1.046-1.271, c)VIF: 1.047-1.271

며, 창업준비를 많이할 뿐 아니라 주변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의 지지가 높을수록 창업 이후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창업준비와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 회귀모형은 $F=15.738$,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35.4%로서 2단계보다 1.1% 증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월 평균 소득 ($\beta=.146$, $t=2.747$, $p < .01$), 창업형태 ($\beta=.104$, $t=2.102$, $p < .05$)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독립변수인 창업준비 ($\beta=.286$, $t=5.491$, $p < .001$)와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 ($\beta=.341$, $t=6.619$, $p < .001$)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창업준비와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 ($\beta=.109$, $t=2.258$, $p < .05$)이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창업준비와 창

업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창업성과에 대해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여 사회적지지는 유사조절변수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4.4.2.2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한편,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을 모두 투입하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1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을 투입하였고,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VIF 값을 확인해 보니 1단계와 2단계, 3단계 모두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12.820$,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8.6%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월 평균 소득 ($\beta=.130$, $t=2.314$, $p < .05$), 창업형태 ($\beta=.122$, $t=2.293$, $p < .05$), 부모형제 창업유무 ($\beta=.128$, $t=2.506$, $p < .05$)는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창업준비 ($\beta=.382$, $t=7.281$, $p < .001$)는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창업실패 부담감 ($\beta=-.230$, $t=-4.485$, $p < .001$)은 창업성과에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창업성과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창업실패 부담감보다 창업준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17.746$,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38.2%로서 1단계보다 9.6% 증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월 평균 소득 ($\beta=.127$, $t=2.422$, $p < .05$)이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창업준비 ($\beta=.288$, $t=5.666$, $p < .001$)는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창업실패 부담감 ($\beta=-.205$, $t=-4.278$, $p < .001$)은 창업성과에 부 (-)의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지지 ($\beta=.336$, $t=6.679$, $p < .001$)는 창업성과에 정 (+)의

Table 7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dependent variable	Phase	Phase 1 ^{a)}			Phase 2 ^{b)}			Phase 3 ^{c)}		
		β	t	P	β	t	P	β	t	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005	.090	.928	-.036	-.747	.455	-.033	-.700	.484
	Age	-.110	-1.950	.052	-.051	-.960	.338	-.052	-.986	.325
	Academic Background	-.036	-.676	.500	-.036	-.728	.467	-.045	-.903	.367
	Average Monthly Income	.130	2.314*	.021	.127	2.422*	.016	.119	2.281*	.023
	Start-up Classify	.122	2.293*	.023	.081	1.618	.107	.079	1.585	.114
	Start-up Type	-.070	-1.335	.183	-.059	-1.198	.232	-.057	-1.169	.243
	Experience of Start-up from Parents and Siblings	.128	2.506*	.013	.092	1.925	.055	.101	2.108*	.036
Start-up Preparations	.382	7.281**	.000	.288	5.666**	.000	.297	5.824**	.000	
Burden of Start-up Failure	-.230	-4.485*	.000	-.205	-4.278*	.000	-.201	-4.185*	.000	
Social Support				.336	6.679**	.000	.325	6.473**	.000	
Start-up Preparations * Social Support							.100	2.131*	.034	
Burden of Start-up Failure * Social Support							.009	.191	.849	
F		12.820***			17.746***			15.300***		
R²		.286			.382			.392		
ΔR^2					.096			.010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창업성과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지지에서 가장 높았으며, 창업준비를 많이 하고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낮을 뿐 아니라 주변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의 지지가 높을수록 창업 이후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창업실패 부담감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 회귀모형은 $F=15.300$,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39.2%로서 2단계보다 1.0% 증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월 평균 소득 ($\beta=.119$, $t=2.281$, $p<.05$), 부모형제 창업유무($\beta=.101$, $t=2.108$, $p<.05$)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창업준비 ($\beta=.297$, $t=5.824$, $p<.001$)는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창업실패 부담감 ($\beta=-.201$, $t=-4.185$, $p<.001$)은 창업성과에 부 (-)의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지지 ($\beta=.325$, $t=6.473$, $p<.001$)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작용항 중에서는 창업준비와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 ($\beta=.100$, $t=2.131$, $p<.05$)이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창업준비와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실패 부담감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 ($\beta=.009$, $t=.191$, $p>.05$)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 간에는 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5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창업준비, 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첫째,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금준비와 창업팀준비를 제외하고 아이템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 1은 일부 채택되었고, 가설 1-1은 채택, 1-2, 1-3은 기각되었다. 둘째,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부담감을 제외하고 실패의 불안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 2는 일부 채택되었고, 가설 2-1은 기각, 2-2는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실패 부담감을 제외하고 창업준비와 창업성과 간에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설 3은 일부 채택되었고, 가설 3-1은 채택, 3-2는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자의 창업준비, 창업

Table 8 Hypothesis Test Result

Hypothesis		Adoption Status
Hypothesis 1	Start-up Preparations → Start-up Achievements	partly adopt
1-1	Item Preparations → Start-up Achievements	adopt
1-2	Fund Preparation → Start-up Achievements	reject
1-3	Start-up team Preparations → Start-up Achievements	reject
Hypothesis 2	Burden of Start-up Failure → Start-up Achievements	partly adopt
2-1	Economic Burden → Start-up Achievements	reject
2-2	Anxiety of Failure → Start-up Achievements	adopt
Hypothesis 3	Start-up Preparations, Burden of Start-up Failure → Start-up Achievement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partly adopt
3-1	Start-up Preparations → Start-up Achievement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dopt
3-2	Burden of Start-up Failure → Start-up Achievement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reject

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연구자들의 연구가 미흡했던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과 창업성과를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아이템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창업자는 창업 전이나 창업이후에도 본질적인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통해 시장검증을 통한 수익모델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Kim and Kwan (2018)이 제시한 창업 실패감과 비재무적성과의 영향관계와 일치한다. 또한 사업아이템을 활성화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감소시켜야 하므로 유사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멘토에게 지식과 노하우를 전

수받아야 한다 (Park and Kim, 2019). 둘째, 창업 실패의 부담감 중에서 실패의 불안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Shapero and Sokol (1982)이 언급하였듯 성공이나 실패는 기업가의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르며 위험감수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창업가마다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창업자는 위험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창업 행동을 해야 한다.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걱정과 불안을 회피하기 보다는 불안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Park(2012)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하게 실패경험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에서도 창업가의 실패의 불안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한다. 셋째,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 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실패 부담감을 제외하고 창업준비와 창업성과 간에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설 3은 일부 채택되었다. 즉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 등 주변에서 관심과 지지보다는 창업자 자신 스스로가 창업실패 부담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창업성과를 위해서는 창업아이템준비를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창업실패감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본 논문은 창업준비와 창업 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실증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상반된 개념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독립변수인 창업준비와 창업 실패 부담감 모두 일부 하위가설이 종속변수인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여 기존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환경적 요

인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자 자신의 준비와 행동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가족과 친구 등의 주변 사회적 지지자로부터 상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업자 자신 스스로 실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채신과 내성을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창업자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은 창업자의 특성이나 임하는 태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침체는 창업자에게 창업실패의 불안감을 증가시키지만 창업자들은 본질적인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첫째, 창업자는 반드시 스스로 문제해결방법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내성을 키워야 한다. 유독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창업실패부담감이 큰 이유는 남들의 시선과 체면을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Ki, 2020).

이렇듯 남들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생겨난 소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인식은 창업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결국 폐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 위험감수 능력과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은 창업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자 스스로 내성을 키우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적당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요인이 아닌 창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창업자 스스로 창업아이템준비와 시장검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창업자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행해야 한다. 둘째,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겪고 있는 창업자와 직접적인 소통공간을 만들고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적 노력

이 필요하다. 현재 창업자에 대한 정부의 공적 자금과 정책적 지원제도가 많지만 창업실패부담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제도나 창업자를 위한 심리적 치유나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상담할 소 통창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 창업자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상담하거나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성과의 긍정적 영향관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최근 연구들은 창업실패감이 오히려 성공한 경험만큼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창업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창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사업실패 경험이 기업가들에게 창업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 (Politis and Gabriellsson, 2009)하였지만, 본 연구는 부정적 영향 관계만 다루었다. 따라서 향후 많은 연구자들의 창업자들의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성과와 영향관계에 관련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기창업자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창업자 전반의 확대로 일반화시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수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성과 종속변수를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만 하였는데 향후 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해 재무적 창업성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해야 한다. 즉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성과의 영향을 미칠 때 창업성과 증 매출에 대한 고려도 참고하여야 한다.

References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 - 211.
- Amit, R., Muller, E., and Cockburn, I. (1995).

- Opportunity Costs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2), 95 - 106.
- Arenius, P., and Minniti, M. (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 - 247.
- Bates, T. (1980).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Financial Review*, 15(4), 8 - 8.
- Birley, S., and Westhead, P. (1994). A Taxonom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Their Impact on Firm Growth and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1), 7 - 31.
- Cardon, M. S., and McGrath, R. G. (1999). When the Going get Stough Toward a Psychology of Entrepreneurial Failure and Re-Motiva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llege, Wellesley, MA.
- Chang, S. D. (2020). What Makes Youth Entrepreneurs Feel Satisfied?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External and Intrinsic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Korea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15, 96 - 118.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 Conroy, D. E., and Elliot, A. J. (2004). Fear of Failure and Achievement Goals in Sport: Addressing the Issue of The Chicken and the Egg, *Anxiety, Stress & Coping*, 17(3), 271-285.
- Cooper, A. C. (1986). Entrepreneurship and Hight Technology, In D.L Sexton, and R. W. Smilor (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Ballinger, 155-168.
- Cooper, C., and Marashall, J. (1998). *The Stress Check: Coping with Stresses of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ew York: Prentice-Hall.
- Cope, J. (2011). Entrepreneurial Learning from Failure: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6), 604-623.
- Cope, J., Cave, F., and Eccles S. (2008). The Impact And Outcomes Of Venture Failure: Entrepreneurial Learning Perspectiv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8(4), 259-298.
- Cressy, R. (1999). Small Business Failure: Failure to Fund or Failure to Learn, *Entrepreneurship,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Macroeconomy*, 161-185.
- Cronbach, L. J. (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3), 297-334.
- Durkheim, Emile. and Suicide. (1951). A Study in Sociology, John, A. (Ed.), *Spaulding and George Simpson*, New York: The Free Press.
- Ha, K. S. (2009). *A Study on the Cost of Entrepreneur's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Ha, K. S., and Han, J. W. (2010). A Study on the Failure - Stress of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1). 21-41.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and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NJ: Prentice Hall.
- House, J. S. (1981). Teacher Burnout: A Psychoeducational Perspective, *Teachers College Record*, 83, 234-243.
- Jang, H. S. (2013). A Society that is Afraid of Starting a Business Should Bolster the Enthusiasm for Starting a Business, Public Perception Survey on Entrepreneurship, *Sustainable Growth VIP Report*, Hyundai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Jang, Y. M. (2018). *The Effects of Senior'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H. J. (2019).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Team Members' Characteristics and Diversity Openness on Performance*,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Jo, J. H. (2019).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Start-up Preparation Process, *Core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 4(10), 29-46.
- Jo, J. Y. (2016). *The Impa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Start-up Preparation of Small Business Trad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Jo, L. G. (2020). Corona's Economic Crisis, Fiscal Role, *Public Policy*,(179), 11-13.
- Joung, S. W. (2001). Survival Strategies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es in the Depression-Academic Presentation and Discussion/Part 2 Presentation: A Study on the User Satisfaction of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 in Busan. *Journal of Spring Academic Presentation, The Korea Small and Medium Business Association*, 137-156.
- Kang, H. S. (2013). *A Study on the Marketability Analyses of Start-up Items and Supporting Policy Tasks*,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Consulting, Pai Chai University, Dae jeon, Korea.
- Kang, Y. U., and Ha, K. S. (2012).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Effect of Prepara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 on Business Performance-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Digital Convergence Research*, 10(9), 239-251.
- KI, H. S. (2020). *A Study on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B. S. (2012). A Study on th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and Entrepreneurship - Focus on the Process Model, *Eurasian Studies*, 9(1), 119-152.
- Kim, J. Y. (2015). *The Effect of Technological Characteristic Factors in Entrepreneurship Items on the Corporate Performace*,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bat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Kim, N. P., and Kwon, Y. J. (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adiness, Social Support, Government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Consulting, and Entrepreneurship Outcomes, *Korea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13, 1-25.
- Kim, S. Y., and Kwak, S. Y., and Jung, G. O. (2019). The Impact of Resili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Failed Entrepreneur: Focus on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Role Model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Regional Industry Research*. 42(1). 57-82.
- Kwak, D. C., Joo, Y. H., and Cho, B. H. (2016).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f Survival Rates: Focused on Youth Start-ups, *Korean Small Business Association*, 38(4), 77-94.
- Landier, A. (2004). Entrepreneurship and the Stigma of Failure, Paper Presented at the MIT Finance, *Development and Macro Workshops*.
- Lechler, T. (2001). Social Interaction: A Determinant of Entrepreneurial Team Venture Success, *Small Business Economics*, 16(4), 263-278.
- Lee, H. Y., and Kim, J. S.(2017). The Effect

-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Team Competency on Performance in the Early Stage of Technology Startup,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2), 31-56.
- Lee, J. H. (2016). *The Motivation for Establishing Start-ups and the Pressure of Failure in Effecting the will to Establish Business Start-ups: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ocial Safety Network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Lee, M. K. (2020). *The Effect of Entrepreneurs Management Competencies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al Support Utilization and Business Operating Period*,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J. (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ce and Sustainability of Entrepreneurs*,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J., and Yang, Y. S. (2018). An Impact of Startup Business Performance by Entrepreneurs' Perceived Importance, Satisfaction, an Level of Meeting to Expectation over Government Startup Business Aid Program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31-41.
- Lee, Y. J., and Kim. Y. H.(2013). How to Revitalize Experienced Startup Sites: (Tentative name) Startup Safari Program, *STEPI Insight*, (130), 1-38.
- Lim, H. J. (2020). *The Job Stress of Mobile Police-Focusing on Analyzing Differences Between the Male and Female Mobile Police Offic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im, A. E. (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McGrath, R. G. (1999). Fai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 13-30.
-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Jossey-Bass, San Francisco, CA.
- Nam, G. J. (2020). *Young Start-ups using Survival Analysis Method Study on Derivation of Survival Factors*,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Oh, J. W., Lee, D. H., and Kang, J. K. (2015).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e of Venture Prepar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of Initial Venture Foundation: Focused on The Effect of Controlling The Period of Venture Prepar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4), 67-80.
- Oh, S. H., and Ha, K. S. (2013).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8), 143-157.
- Park, D. S. (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Sustainable Food Service Enterprise of Pre-Entrepreneur, Re-Entrepreneur, Entrepreneur, *Journal of Food 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21(2), 211-242.
- Park, H. S., and Kim, G. B. (2019). The Affect of Startup CEO's Activities for Startup Preparing And CEO's Characteristics on Startup Performace,

- Corporate Management Review*, 10(3), 273-290.
- Park, J. W. (2020). *The Relationships between Founders' Entrepreneurial Leadership, Team Learning Behavior, Team Boundary Spanning, and Performance in the Early-Stage Startups*,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H., and Ahn, T. U.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ng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Preparation up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Us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1). 39-47.
- Park, M. S. (2012).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SME CEOs' Experienced Business Failure on Firm Performance*,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H. (2016). An Empirical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Burden of Failure Loss on Entrepreneurial Will, *Korean Entrepreneur Society Conferences,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47-50.
- Politis, D., and Gabrielsson, J.(2009). Entrepreneurs' Attitudes Towards Fail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5(4), 364-383.
- Rauch, A., and Frese, M. (2007). Let's Put the Person Back Into Entrepreneurship Research: A Meta-analysis on the Personality Traits, Business Creation, and Succes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4), 353-385.
- Sarasvathy, S. (2008). *Effectuation: Elements of Entrepreneurial Expertise*,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Cheltenham, UK.
- Seo, J. D. (2016).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Impact of Self-Preservation on Securing Social Capital through the Medium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Academic Present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anagement Education Association*, 84-92.
- Shane, S., and Venkataraman, S.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217-226.
- Shapiro, A., and Sokol, L. (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hapiro, A. (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Kent, C., Sexton, D., and Vesper, K. (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72-90.
- Sitkin, S. B. (1992). Learning through Failure: The Strategy of Small Losses, Cummings, L.L., and Staw, B.M.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4.
- Song, K. S. (2015). The Effects of Small Business CEO's Start-up Environment on Fear of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Failur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2), 393-407.
- Vesper, K. H. (1990). *New Venture Strategie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Washington-Department of Management & Organization.
- Venkataraman, N., and Ramanujam, V. (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801-814.
- Venkataraman, S. (1997). Value at Risk for a Mixture of Normal Distributions: the Use of Quasi - Bayesian Estimation Techniques,

Economic Perspectives,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21, 2-13.

Vyakarnam, S., Jacobs, R. C., and Handelberg, J. (1997).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Teams in Rapid Growth Businesses*, BDO Stoy Hayward Centre for Growing Businesses at Nottingham Trent University.

Yoon, B. J., and Ha, K. S.(2012). Recognition of Business Failure and Succes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8), 3406-3414.

Zacharakis A. I. and Meyer, G. D., and Decastro J. (1999). Differing Perceptions of New Venture Failure: A Matched Exploratory Study of Venture Capitalists and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7, 1-14.



한 향 원 (Hyang Won Han)

- 정회원
- 서강대학교 언론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석사 졸업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 경영학 박사과정
- (현재) (주)더블유벤처투자 대표이사
- 관심분야: 벤처경영, 벤처투자, 경영전략



하 규 수 (Kyu Soo Ha)

- 종신회원
- 미국 T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 (J.D)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 대학원 졸업 (LL.M)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현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벤처, 벤처경영, 경영전략